

2024
07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우)02811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41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6층

www.kamt.or.kr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원활한 병리협보 배송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5자리 우편번호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CONTENTS

01 COVER

제2차 조직위원회 회의 개최

02 FOCUS

임상병리사의 미래는 변화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1)

05 INTERVIEW

HCLD 취득 유경래
임상병리사

제498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 We pioneer breakthroughs in healthcare. For everyone. Everywhere. Siemens Healthineers Ltd.

-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 고객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총일화학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서경아
편집위원 이도왕, 이현희, 남기준
기자 황래환

디자인·인쇄 혜성디자인

Tel : 02)469-0577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제62회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제2차 조직위원회 회의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이광우)가 6월 8일(토) 오후 2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2024년 제62회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제2차 조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직위원회 회의에는 총 56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PCO 업체의 전체 계획 보고와 분과별 보고 및 공유사항 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사전등록 기간 △회원 점심식사 운영 관련 △포스터 일괄 인쇄 △미팅 페스티벌 관련 사항이 결정됐다.

제62회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는 현장등록이 불가하며 사전등록 기간은 6월 10일(월)부터 8월 16일(금)까지다. 또한, 이번 종합학술대회에서는 점심 도시락 제공 대신 기념품 쿠폰이 추가로 증정될 예정이다. 4평점 신청자에게 20,000원, 8평점 신청자에게 30,000원이 제공된다. 포스터 발표 자료의 경우, 발표 자료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협회가 일괄 제작 후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학술대회는 갈라디너 운영 대신 미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미팅 페스티벌은 후원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회원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가 가능하며 임상병리사 동료 및 선후배와 만날 수 있는 회원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62회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는 8월 30일(금)부터 31일(토)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62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The 62nd Congress of KAMT & International Conference

빛나는 지혜로 **진단검사** 미래를 열다

Open the Future of **Diagnostic Testing** with Brilliant Wisdom

지식의 바다 **인천**에서 펼쳐는 **학술의 향연**



주최 |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주관 | 인천광역시 임상병리사회

후원 |



일시 | 2024.08.30(금) ~ 08.31(토) 장소 | 인천 송도컨벤시아 사전등록기간 | 2024.06.10(월) ~ 08.16(금)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

임상병리사의 미래는 변화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1)



현재 우리가 처한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보건 의료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62년 만에 현 집행부가 아닌 전 경기도회 출신 이광우 후보가 7만 2천여 명의 임상병리사 단체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새 수장으로 당선되는 돌풍을 일으켰다. 그야말로 변화와 혁신을 주장하던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이변이자 도전이었다. 어쨌든 대의원들은 안정보다는 변화와 혁신을 선택했다. 28대 이광우 회장은 '협회를 회원에게'라는 슬로건으로 집행부를 구성하고 여정을 시작했다. 28대 집행부가 더욱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임상병리사의 업권 수호와 확대를 위해 조직 체계를 정비했다. 62년 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회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대외협력정책실장을 상근직으로 뒀다. 협회 정책실장의 역할은 단순히 정책 수립과 추진에 그치지 않고, 집행부와 사무국 직원들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회원들의 업권 수호와 권익 보호를 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종합적으로 협회 정책실장의 일상 업무는 회장 업무 수행의 빈 공간을 채우며 국회, 정부 유관기관(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의 소통, 정책 추진 현황 모니터링, 내부 부서 간 조정 등 다양한 영역이 있다. 그렇다면 정책실에서는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27대 집행부에서의 주요 사업을 비교하며 2024년 상반기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 간호법 반대와 임상병리사 (2022-2023)

2022년부터 27대 집행부는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해 투쟁해왔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삭발까지 하는 투혼으로 간호법을 반대했다. 하지만 2023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고, 5월에 전국적인 집회와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의 단식투쟁에 참여했다. 5월 16일 대통령의 거부권을 통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후 마침내 상황이 종료됐다.

- 간호법 재발의와 임상병리사 (2024-현재까지)

2024년 3월, 정부의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간호사들의 진료 지원 행위에 임상병리사의 업무인 심전도와 초음파가 포함됐다. 28대 집행부는 의료현장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보건의로 실무대책 T/F팀을 구성하고 보건복지부 의료지원정책과를 방문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후 개정안에는 '심전도, 초음파, 혈액 검체 채취, 혈액 배양 검사' 등이 제외됐다.

의료 공백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진료 지원 행위가 간호법에 대한 여론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장기화된 의료 대란의 탈출구로 보건복지부가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선회했다. 협회는 진료 지원 업무가 간호사의 전문성이 아님을 강조하며, PA로 활동하는 인력들이 다양한 직역에서 존재한다는 점도 부각했다. 앞으로 의료 행위는 의사들이 하던 일이 고정불변이 아님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의료 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임상병리사의 업무 범위가 확장되거나 새로운 업무 범위가 설정될 수 있다. 협회는 이에 대비해 각 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와 함께 임상병리사 업무 범위를 재정립하려고 한다.

따라서 현재 협회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임상병리사 제도는 전면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정책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총선 이후 2024년 5월 중에 발의된 간호법이 국회, 정부, 대한간호협회 그리고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 합의된 것이기에 간호법이 통과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변수로 회기를 넘기게 됐다. 협회는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5월 중에 합의된 간호법은 여러 장애물을 넘어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당론으로 채택돼 7월 중 간호법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협회는 3월부터 적극적으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표자들과 함께 그동안 간호법 11조 간호사 업무에서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제외해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했다. 마침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에 따라 의료기사의 업무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추가돼 임상병리사 업무에 대한 간호사들의 침범 행위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다.

- '간호법과 패키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7월 발의

협회는 3월부터 간호법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예의주시해왔다. 의료법 중 의료시행령에는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인력 기준표가 명시돼 있지만, 의료기사에 대한 인력 기준이 없었다. 때문에 협회는 집중적으로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 및 국회와 관계를 맺으며 적극적으로 이를 준비해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간호법과 패키지로 통과된다면, 보건의료인력위원회는 간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입법에 대한 자문과 함께, 직종별 업무 범위 보장 기준 마련, 의료기사 전문 자격 제도 도입, 근로환경 처우 개선 등을 세부 주제로 심의, 의결하게 될 것이다. 또한 협회는 지역 필수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진료 지원 인력(PA) 심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임상병리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협회는 지속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의료기사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기사들의 공통된 숙원 사항인 의료기사 전문 자격을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에서 관리하고, 시험 관리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 자격은 보건복지부 자격증으로 받을 수 있게 의료기사법을 개정하는 로드맵을 준비할 예정이다.



- 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전문성과 환경을 고려해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게 된다. 여기에 협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분과 위원회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들어가게 된다. 이는 임상병리사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것으로, 의사들과의 관계를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분과 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행위별, 사안별로 묶어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같이 논의하고,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합의된 사항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잘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다음 호에 계속...

2024년 제62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24. 08.30(금)												
TIME	1층		Lobby	기본 교육 세션		203호(18)	2층		International Meeting	TIME		
	1층 전사실	기본교육세션 116호		그랜드 볼룸 A	그랜드 볼룸 B		학술향연 세션	203호(18)			학술향연 세션	세계속의 KAMT 세션
09:00 - 10:00	포스터 전시	기기전시	학술대회 접수	보건복지부 필수교육	대한임상병리사과학회 심포지엄 대한 임상병리사과학회지 우수논문발표 및 시상	201호 + 202호(90)	Preview Room	보건복지부 필수교육	204호 + 205호(129)	206호 + 207호(135)	208호(20)	09:00 - 10:00
10:00 - 11:00				실무연수강좌 심포지엄 I				진단검사 시스템 심포지엄				10:00 - 11:00
11:00 - 12:00				인증심사 길라잡이 심포지엄				임상검사과학회 (KJCLS) 특강				11:00 - 12:00
12:00 - 13:00				Lunch				Lunch				12:00 - 13:00
13:00 - 14:00				대한진단 검사정도관리 협회 세션				법규특강 I				13:00 - 14:00
14:00 - 15:00				커피타임				임상병리 퀴즈쇼				14:00 - 15:00
15:00 - 16:00	기기전시			개회식				분과 심포지엄 (임상미생물검사학회)	한-일 교류공로자 회의	연구정책과제발표	15:00 - 16:00	
16:00 - 17:00				Keynote speech (교수특강)							16:00 - 17:00	
17:00 - 18:00											17:00 - 18:00	
18:00 - 19:00											18:00 - 19:00	

24. 08.31(토)												
TIME	1층		Lobby	기본 교육 세션		203호(18)	2층		International Meeting	TIME		
	1층 전사실	기본교육세션 116호		주제심포지엄 세션	기본 교육 세션		203호(18)	학술향연 세션			학술향연 세션	International Meeting
09:00-10:00	포스터 전시	기기전시	학술대회 접수	주제심포지엄 I	실무연수강좌 심포지엄 II	Preview Room	204호 + 205호(129)	206호 + 207호(135)	208호(20)	09:00-10:00		
10:00-11:00	국제포스터 발표			주제심포지엄 II	분과 심포지엄 (임상화학검사학회)					분과 심포지엄 (조직세포검사학회)	10:00-11:00	
11:00-12:00	포스터 발표 및 포스터 심사			교양특강	Lunch					분과 심포지엄 (임상수혈검사학회)	한-일 대표단 회의	11:00-12:00
12:00-13:00	포스터 전시			주제심포지엄 III	분과 심포지엄 (임상화학검사학회)					분과 심포지엄 (임상수혈검사학회)	한-일 대표단 회의	12:00-13:00
13:00-14:00				임상병리와 도핑검사	분과 심포지엄 (임상유전검사학회)					분과 심포지엄 (중중보건검사학회)	13:00-14:00	
14:00-15:00				정책특강	분과 심포지엄 (임상검사정보학회)					분과 심포지엄 (임상화학검사학회)	14:00-15:00	
15:00-16:00		폐회식	보건복지부 필수교육	분과 심포지엄 (임상병리검사학회)	15:00-16:00							
16:00-17:00				중중보건의원 학술 심포지엄	16:00-17:00							
17:00-18:00				보건복지부 필수교육	17:00-18:00							

*시간표는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498차 상임이사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6월 20일(목) 오후 6시 30분 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498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19명 중 17명, 총원 45명 중 34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정리된 각 부서별 보고사항으로는 △총무부 2024년 제28대 집행부 워크숍 개최 보고, 2024년 송도컨벤시아 및 인근 호텔 답사 보고, 2024년 제1차 윤리위원회 회의 개최 보고, 제2차 조직위원회 회의 개최 보고, 2024년 제499차 상임이사회 개최 안내, 사무국 신규 직원 채용 보고 △재무부 교부금 지급, 2024년 외부회계법인 감사 계약 체결, 2025년 종합학술대회 울산시회 1차 홍보 지원금 지급, 2023년 귀속본 하나카드 제휴기금 적립, 2024년 진폐정도관리 폐기물 검사 및 판정교육 대행 용역 선금 지급, 종합학술대회 강사료 및 집행부 임원의 사회자(좌장) 진행비에 대한 내용 △학술부 연구정책과제, 종합학술대회 보고, 편집위원회 보고 △교육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시행규칙 변경에 대한 협회 입장표명 및 임직원 등 현안 논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장실습 개정(안) 관련 의기충 회의, 제1차 전문임상병리사 운영위원회 회의,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현재 상황 보고,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홈페이지 및 평가시스템 구축 잔금 지급 △국제부 TAMT(대만) MOU 진행 사항 보고, JAMT(일본) 관련 보고, AMTT(태국) 관련 보고, AAMLS 관련 보고 △공보부 병리협보 편집 및 발간, 병리협보 광고 현황, 유튜브 및 SNS 관리, 2024 KAMT 인턴 기획 및 홍보 일정, 보도자료 배포 및 축사 작성, 협의회 관련 신문 광고 진행, 회원고충처리 현황, 기타 부서 협조 요청 진행 상황 △정보통신부 사무국 PC 및 NAS(Network Attached Storage) 시스템 구입의 건, 홈페이지 유지보수의 건, 협회

홈페이지 시스템 고도화의 건, '협회 제휴카드 발급 및 복지물 이용을 위한 회원 정보 제공 동의' 이벤트 실시의 건, 시상담당자 구축의 건 △기획정책부 언론보도 홍보 방안 논의의 건, 정회원 혜택 강화의 건 △정부부 이승로 성북구청장 간담회, 김윤(제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간담회, 성북구청 MOU 관련 실무자 회의, 김윤(제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간담회 △중중보건의원 중중발전위원회 2차 회의, 중중발전위원회 실무자 개발팀 소위원회 회의, 16개 시도회 대표위원 워크숍 진행 △보훈부 2024년 제3차 보훈부 회의가 진행됐다. 이어진 안건 심의, 의결에서는 사무국 직원 특별생존의 건,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대관운영 세칙 개정의 건, 임상병리사 대국민 홍보 행사(임상병리사의 날) 기획의 건, 회의수당 운영세칙 개정의 건을 진행했다. 안건은 모두 의결됐고 기타토의 후에 제498차 상임이사회는 정상적으로 폐회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페르소나AI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AI 시대에 발맞춰 회원 편의성을 강화했다. 협회는 6월 20일 (목)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주)페르소나에이아이(대표 유승재, 이하 페르소나AI)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페르소나AI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엔진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컨택센터(AI Contact Center)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특히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빠르게 대응하는 AI 콜봇 및 챗봇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협회는 페르소나AI에서 제공하는 AI 기반 챗봇을 도입해 임상병리사 회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응대 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추후에는 AI 기반 콜봇 서비스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이광우 협회장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빠르게 변화한다"며 "의료계 역시 4차 산업 기술과 헬스케어가 결합된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를 맞이한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필두로 임상병리검사의 디지털화 등 의료계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임상병리사의 미래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원 복지 혜택 강화 위해 노무사 자문계약 체결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스타노무법인(대표노무사 신동환)과 협회 자문계약을 진행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6월 20일(목)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신동환 대표노무사를 협회 노무사로 위촉하는 위촉식을 가졌다.

협회는 회원에 대한 복지 혜택을 한층 강화할 목적으로 노무 관련 자문계약을 추진했다. 스타노무법인은 협회 사무국 관련 노동 법률 자문과 함께 협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노무 상담, 노무 관련 서류 검토 및 점검, 노무 관련 사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광우 협회장은 "협회는 항상 회원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노무와 관련된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기 쉽지 않

에 협회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자문계약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앞으로도 항상 28대 협회의 슬로건인 '협회를 회원에게'를 마음 속에 새기며 협회가 어떻게 하면 회원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일교류공로자회 김경희 위원 별세...향년 91세



한일교류공로자회 김경희 위원이 6월 19일(수) 별세했다. 향년 91세.

故 김경희 위원은 1962년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전신인 대한임상검사기술협회를 발족했고 협회 창립 발기인으로서 중앙회 2대 이사, 4대 이사, 5대 부회장, 6대 이사를 역임하며 협회의 초석을 다졌다. 또한, 김경희 위원은 제4대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 회장과 1988년 설립된 초대 혈액·수혈검사학회장, 한일교류공로자회 위원으로서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역사를 함께했다.

故 김경희 위원은 1958년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적십자병원에서 혈액은행이 개설돼 임상병리사 업무를 시작했다. 또한, 대한민국 수혈검사학 역사의 산증인으로 대한적십자혈액원에서 현혈관리업무를 하면서 안전한 수혈용 혈액을 공급하기 위한 수혈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국가 혈액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초석이 됐다.

협회 초창기에는 국제교류의 필요성에 따라 협회 한일교류 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며, 1973년 일본임상위생검사기사회(JAMT)와 한일교류 협정을 맺었고 JAMT가 주최하는 '일본의학검사학회'에 매년 대표단과 발표자를 참석시키며 양국 단체 간의 우호증진과 학술교류에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의료기사직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교육훈련센터(센터장 오영아)가 6월 20일(목)과 21일(금) '임상병리사를 위한 체계적인 검사관리 과정'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전국 공공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임상병리사를 대상으로 POCT(Point of Care Testing, 현장진단검사) 장비와 검사법 정도관리의 최신지견을 학습하여 전문성과 임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광우 협회장은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 임상병리사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그 외에도 △POCT 장비의 적용과 이해 △검사 정도관리 최신지견 Part 1. 당노질혈의 이해 △Part 2. 지질대사의 이해 △Part 3. 신장질환의 이해 △Part 4. 간기능검사의 이해 △공공의료기관 임상병리사의 연계 협력을 위한 소통 워크숍 △마음건강 증진 및 소진 관리를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이 이뤄졌다.



Interview

자랑스러운 임상병리사 인터뷰



유경래 임상병리사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대한민국 임상병리사 출신으로 미국의 권위 있는 자격증인 HCLD(High-complexity Clinical Laboratory Director) Certification을 취득한 유경래 임상병리사와 인터뷰를 통해 소감을 들어봤다.

Q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엘바인에서 임상병리사(Clinical Laboratory Scientist)로 일하고 있는 유경래입니다. 한국에서 16년 이상 주한미군 용산 병원에서 근무하였고, 대한임상병리사협회 25대 중앙회 이사로서 협회에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Q 현재는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A 현재 Lead CLS로 주요업무는 스케줄 설정, 문제 해결, Technical support, management meeting, IQC support 등 lab operation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실 때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셨을까요?

A 특별한 계획은 없었고, 주한미군 근무 경력 특별이민을 가게 된 것이라 새롭게 직장을 구할 수 있나? 과연 살아남을 수 있나?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기회를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걱정을 하였고, 미국에서 임상병리사로 살아남아야 하겠다는 것이 당시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Q 한국에 있는 임상병리사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HCLD, 어떤 시험인가요?

A 미국에서 CLIA라는 법령이 있는데 거기서 규정하는 실험실 최고 감독관 자격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국가고시가 아닌 우리가 잘 아는 ASCP 같은 민간기관에서 모든 전문 자격시험을 위탁하는데요. ABB(American Board of Bioanalysis)에서 주관하는 HCLD(High Complexity Clinical Laboratory Director) 자격을 갖추면 전 미국에서 병원 실험실 및 임상실험실(clinical commercial laboratory)을 운영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뉴욕 등 5개 주는 자신의 주법에 의해서 이 자격을 면허로 전환해야 하는데 저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기 때문에 지금 면허 전환 과정에 있습니다.

모든 임상실험실 등록(CLIA number)을 받으려면 HCLD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Laboratory는 주로 의사(Pathologist, 또는 임상검사 경험이 있는 physician)가 하고 있지만 Ph.D 가운데 그 조건이 충족하는(HCLD 자격증) 사람에게 한하여 그 권리를 부여합니다. 5개의 실험실까지 설립 운영,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미 전역을 통틀어서 원하는 곳 어디든 리모트(재택)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험실 면허를 감독관에게 주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도 감독관(Director)이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단순히 실험실 운영에 따른 임상검사 질(Quality)뿐 아니라, 예산, 시설, 안전, 보험청구, 법령 등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매년 미국 CMS(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l Service)라는 곳에서 CILA Lab Registry라는 문서를 공개하는데 보통 수십 장이 되는 그 문서에서는 어떤 실험실 어떤 디렉터가 무슨 징계를 왜 받았는지를 공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 그에 맞는 권리와 보상이 있다고 봅니다.

Q 시험을 통과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시험 준비 과정이 궁금합니다.

A 2022년 8월 말에 신청하여 2023년 4월 시험 자격이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 즉 서류심사만 8개월 소요되며 제가 신청한 날로 2년, 2024년 8월까지 ABB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시험은 매년 5월, 10월 미전역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으로 두 번 있습니다.

저는 2023년 5월 라스베이거스, 2023년 10월 뉴올리언스 두 번의 시험을 실패하였고 마지막 2024년 5월 라스베이거스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과목은 일반과 전공인데 자세한 것은 비밀유지 서약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일반과정은 미보건법규(CLIA), 안전법규(OSHA), 예산, 실험실관리, QC/QA 관련 문제를 보고 전공은 Molecular Diagnostics를 선택하여 시험을 치렀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전체적인 문제 해결과 예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저에게는 모든 문제가 지식이상 영어로의 이해가 참 어려웠습니다.

Q 대한민국 임상병리사 출신으로 HCLD 자격증을 취득하신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하셨던 만큼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A LinkedIn 같은 곳을 검색하면 간혹 한국인을 볼 수는 있는데 저와 같은 HCLD(general) 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임상병리사 출신 가운데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분은 빈 적이 없는데 아마 더 계시지 않을까요? 오심이 넘은 나이에 2번이나 실패하면서 많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특히 나빠진 머리 탓에 봐도 외워도 또 잊어버리는 절망적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봐서 모르면 두 번 보고 두 번 봐서 모르면 또 보고, 그림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그려보고 그렇게 어떤 책은 일곱 번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이미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반복하세요. 주식, 부동산은 영원히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곳에 투자하기 보다는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것에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자격, 머릿속 지식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시험을 통과하고 무척 기뻐했던 이유는 이번 시험이 저를 직장에서, 정년에서 해방시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디렉팅을 하던 안 하던 전 영원히 HCLD입니다. 시험에 붙으면 이렇게 편지가 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이름 뒤에 HCLD를 쓸 수 있다고...

"You are now entitled to use the initials (HCLD) following your name. Congratulations!"

Q 앞으로의 계획은?

A 지금 당장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습니다. 자격만 있는 것이 아직 제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면허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또한 준비 과정이 만만하지 않지만 우리 K-CLS(한국임상병리사협회 회원)의 응원을 받아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경력을 좀 쌓아야 해서 캘리포니아가 아닌 타주의 소규모 실험실을 리모트로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의 경력과 면허가 완전체가 되면 캘리포니아에 멋진 실험실을 개설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고 싶어하시는 우리 임상병리사의 등대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신이 그만 둘 때까지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나의 자랑, 대한민국 임상병리사 화이팅!



대한임상검사과학회, 2024년도 편집위원 워크숍 개최

대한임상검사과학회 편집위원회(학회장 성현호, 위원장 윤현)가 지난 5월 24일(금)부터 25일(토)까지 '연구윤리와 논문심사 편집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윤현 편집위원장은 SCOPUS 등재를 목표로 '학술지 발간에서 투명성 원칙과 업무 처리 지침 16개 항목'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준비 중임을 밝히며, 편집위원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또한 오는 8월 30일(금) 제62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에서 우수 논문 연재 및 시상식 개최와 임상병리사 실무자들의 논문 게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임상검사과학회(KJCLS) 특강: 쉬운 논문쓰기' 섹션을 운영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이번 워크숍은 △연구윤리 및 심사자 교육(윤현 편집위원장) △논문 투고 현황 및 학술지 출판 관련 정책(임건일 편집부위원장) △대한임상검사과학회 3개년(2024-2027) 운영 계획(성현호 학회장) 순으로 진행됐고 편집위원회 발전 토론회에서는 KCI 등재지 평가지표에 따른 고득점을 위한 전략, 임상 실무자 논문 투고 지원 사업, 연구윤리 개정사항 및 연구 부정행위 관련 이슈, 논문 투고 시스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KAMT Policy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성현호 학회장은 "SCOPUS 등재를 목표로 학술지의 질적 향상, 회원 역량 강화, 국제 협력 강화 등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여 학술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편집위원과 중앙회 송기선 학술부회장, 지우현 총무이사, 최병후 학술이사는 학술지 발전을 위한 세부 전략에 대해 활발히 토론했고, 향후 유용한 정보 교환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다짐했다.



경기도 임상병리사회

포천시보건소와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유광철)가 5월 30일(목) 포천시보건소(보건소장 정연오)와 포천시 지역보건의료산업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회 집행부와 김기유 자문위원(현 중앙회 대외협력정책실장)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에는 △포천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지원 △포천시민 만성질환 예방 교육 지원 △만성질환 체외진단기기 정도 관리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포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양측은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경기도회는 회원들과 함께 지역 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경기도회는 협약식 후 이어진 이현호 포천시 부시장과의 환담에서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현호 부시장은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의 한 방편으로 경기도회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이후 유광철 회장은 보건소 진단검사의

학실에서 근무하는 이민희 회원을 만나 덕담과 격려를 전했고, 지역사회 임상병리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길 당부했다.

경기도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임상병리사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제공해, 회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회 동정

- 6월 4일** 제1차 기획부 회의
- 전문임상병리사 운영위원회 회의
- 6월 8일** 제2차 조직위원회 회의
- 6월 11일** 김윤 국회의원 보건의료기능단체 대표자 정책간담회
- 6월 12-14일** 태국학회
- 6월 17일** 회장단 회의
- 6월 18일** 제3차 제휴카드 및 복지물 회의
- 제3차 보험부 회의
- 6월 20일** 제498차 상임이사회

- 6월 21일** 제2차 정책개발연구위원회 회의
- 6월 22일** 체혈료 산정 소위원회
- 제2차 윤리위원회 회의
- 공익신고위원회 회의
- 6월 27일** 성북구청 업무협약식
- 협회관 건축물 감정 현장 조사
- 제3차 중소병의원 발전위원회 회의
- 6월 29일** 공단전문강사 워크숍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

2024년 임원진 워크숍 개최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황원주)가 6월 8일(토) 할리스 부산송도점에서 2024년 부산시회 임원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가족공예와 저녁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

2024 제주도회 단합대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정무상)가 6월 2일(일) 제주한라수목원에서 2024 제주도회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단합대회에는 회원 및 가족 120명이 참가했고 다양한 경품 및 기념품을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제주도회는 회원들의 권익도모를 위해 매년 단합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회

2024년도 제1차 보수교육 및 학술단합대회 개최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조대현)는 5월 19일(일) 대구한 의대학교 삼성캠퍼스에서 2024년도 제1차 보수교육 및 학술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중앙회 이도왕 공보부회장과 예비 임상병리사인 대구한대의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이 함께 했다. 제1부 보수교육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대구한의대학교 삼성캠퍼스 6호관 강의실에서 △1강 감염관리 임상병리사의 업무 △2강 정도관리 의 이해와 실무 적용 △3강 검진 기관평가 길라잡이 △4강 심전도 검사의 실제와 파형 해석을 주제로 진행됐다. 제2부 학술단합대회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동캠퍼스 체육관에서 피구, 판 뒤집기, 줄다리기, OX 퀴즈 순으로 진행하며 팀별 상품과 개인 행운권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회원들과 화합되는 기회를 가졌다.



조대현 회장은 행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보수교육과 학술단합대회는 신입 28대 집행부와 경북도회 회원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으며, 회원들 모두 즐겁게 하나 되는 마음으로 참여해주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

2024년 혈액전문임상병리사 양성교육 개최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학회장 이현아)가 6월 22일(토)부터 8월 17일(토)까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격주 토요일마다 총 5주간 40시간에 걸쳐 지원자 4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2024년 혈액전문임상병리사 교육을 시작했다.

김선경 혈액전문임상병리사위원장은 "의과대학 교수진과 임상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을 구성해 혈액학 기초 이론, 골수와 세포 형태, 인종심사문항 정리 부분까지 양적, 질적 교육을 통하여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을 높이며 현장에서의 정확한 검사 결과 제공, 학술과 연구개발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양성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학문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혈액학전공교수회와의 워크숍 실시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는 6월 15일(토) 서울 삼경교수센터 5층 회의실에서 2024년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와 혈액학전공교수회 워크숍을 실시했다.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

전국 화학전문임상병리사, 혁신적 하이브리드 보수교육 통해 역량 강화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학회장 이승모)가 6월 15일(토) 대한임상병리사회협관 지하 대강당에서 2024년 화학전문임상병리사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특히 분과학회 최초로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돼 서울, 부산, 광주 등 주요 거점 도시에서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회 측은 "하이브리드 방식 교육으로 참가자들에게 유연한 참여 방법을 제공해 시간과 거리적인 면에서 제약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세션 '검사 전 단계 품질지표 및 실제 병원 사례 소개'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실제 병원 사례를 통해 이론이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소개했다. 특히, 검체 수집 초기 단계에서의 주의 사항, 저장 및 처리 과정에서의 표준 운영 절차 준수 중요성이 강조됐다. 두 번째 세션 '국시원 임상화학 실기문항 개발 개요 및 사례'는 화학전문임상병리사로서 국가고시 문항 개발에 참여해 좀 더 내실 있고 최신 임상학의 경향에 발맞출 수 있는 국가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문임상병리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회는 이번 하이브리드 보수교육의 성공을 바탕으로 추후 있을 화학전문임상병리사 양성교육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회는 더 많은 전문임상병리사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교육을 접할 수 있게 해 전문성 강화 및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임상핵의학검사학회

제69차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대한임상핵의학검사학회(학회장 박준모)가 5월 25일(토) 대구보건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69차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박준모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학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언급하면서 학술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학회 하동혁 보림이사(서울대학교병원)의 '건강보험제도의 이해와 상대 가치점수 3차 개정'에 관한 특강이 진행됐고 체외검사 세션, 방사성의약품 세션 순으로 구연발표가 있었다.

우수학술구연상은 '핵의학검사 반응에 사용되는 Water Bath와 Air Incubator 간 유효성 평가'를 주제로 발표한 정예진 회원(서울아산병원), '11C-Methionine 합성 시 사용되는 흡습제 비교'의 주제를 발표한 박영시 회원(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수상했다.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

제2회 수면다원검사 실무 기초교육 실시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학회장 김상훈)가 6월 2일(일) 일원역사 9층에 강의실에서 제2회 수면다원검사 실무 기초교육을 시작했다. 첫 번째 교육은 교육생 상건례와 함께 △기초 이론과 검사 교육 △실무 위주의 교육 △실제 판독 프로그램 사용 실습 등 교육과정의 개요와 교육 계획 내용이 공유됐다.

이번 교육은 6월 30일(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8시간씩 5번 총 40시간의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한임상검사정보학회

제1차 평의원 회의 실시

대한임상검사정보학회(학회장 이창경)가 5월 25일(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2024년 대한임상검사정보학회 제1차 평의원 회의를 실시했다. 안건으로는 2024년 대한임상검사정보학회 회칙 및 시행세칙 개정, 신설의 건이 진행됐다.



대한임상유전검사학회

2024년 제1차 NGS 교육 실시

대한임상유전검사학회(학회장 이진동)가 5월 25일(토)부터 27일(월)까지 3일간 앤젠바이오 연구소와 함께 '2024년 제1차 NGS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9년 대한임상유전검사학회 창립 이후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NGS 교육으로, 교육 신청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될 만큼 NGS 검사의 실험과정 및 분석과정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교육은 △NGS의 이론과 동향 △바이오마커를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타겟캡처(Hybe & Capture) 방식의 실험 △환자 유전체 변이의 임상적 해석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 참가 회원들은 "NGS검사 및 Bioinformatics 교육을 통해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고 이진동 학회장은 "앞으로도 기업체의 기술적인 경험과 현장 의료 및 진단 동향을 서로 공유하는 교육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진단의 최일선에 있는 임상병리사들이 NGS 검사 및 분석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씨젠의료재단, '제2회 대전충청 진단검사의학 학술 심포지엄' 개최

중부권 최대의 고품질 임상 검체 검사센터 (재)씨젠의료재단 대전충청검사센터가 6월 12일 대전충청검사센터 6층 컨퍼런스홀에서 '제2회 대전충청 진단검사의학 학술 심포지엄'(이하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대전충청검사센터 개원 2주년을 기념하고 진단검사 분야 최신 지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본원 한규섭 대표의원장·이미애 학술원장·대전충청검사센터 구선희 대표원장,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권계철 병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충북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손보라 교수는 「제1회 대전충청 진단검사의학 학술 심포지엄」에 이어, 올해 학술 심포지엄에서도 좌장을 맡아 학술발표를 진행했고, 더만족병원 내과 안용환 원장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준희 교수가 주제 발표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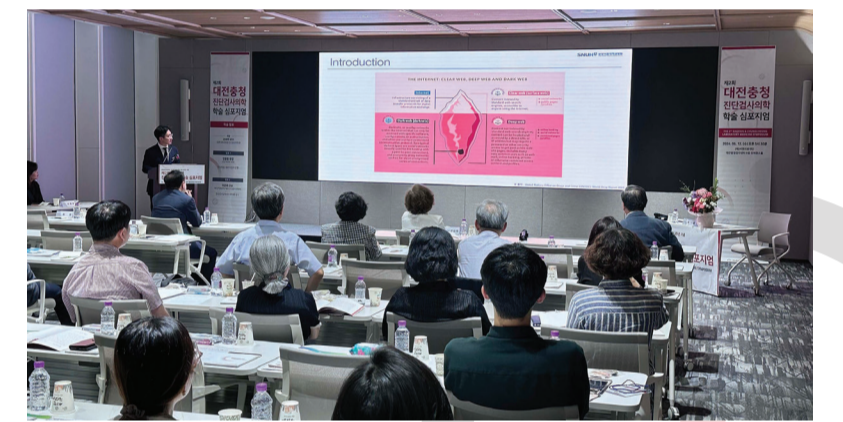
먼저 안용환 원장은 '만성위염, 패러다임의 전환' 제하의 발표에서 만성위염의 정의 및 관련 특성을 설명하고, 만성위염의 접근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이준희 교수는 '임상검사실에서의 마약류 검사'를 주제로, 마약류 선별 및 확진 검사·검

체 종류 및 검사 해석 방법·마약류 검사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발표했다.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한 권계철 병원장은 "대전충청검사센터 개원 2주년 학술 심포지엄을 축하하고, 앞으로 대전충청검사센터가 대전·충청 지역 진단검사의학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리라 기대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구선희 대표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단검사 분야와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학술 심포지엄을 찾아주신 의학 전문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개원 2주년을 맞은 대전충청검사센터는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며, 신뢰를 토대로 의료 전문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 대전충청검사센터는 2023년 6월 19일 연면적 10,437㎡(3,756평)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의 신사옥을 오픈했다. 대전충청검사센터 신사옥은 검사 및 행정 공간 외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피트니스센터와 G.X룸(요가 및 필라테스), 직원라운지, 자기계발실 등을 구비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1층에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TALK

앞으로 병리협보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됩니다.
카카오톡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ADVANCED INSTRUMENTS
충일화학 Advanced Instruments, LLC 취급 제품

(주)충일화학
CHOONG IL CHEMICAL, INC.
A.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 6길 24
T. 02-2294-6411 H. www.choongil.com
E. webmaster@choongil.com



협기 미호기 환경 시스템
Achieve unrivaled reliability of anaerobic, microaerophilic, and capnophilic environments with the Anoxomat® Anaerobic Jar System



정도관리물질
Verify instrument performance at clinically relevant osmolality levels with Protinol™ and Renol™ Controls



피펫 교정 시스템
멀티채널 리퀴드 핸들러검증 시스템
Simplify pipette performance and ALH management with the Artel PCS® Pipette Calibration System and MVS® Multichannel Verification System



삼투압측정기
Experience walk away osmolality testing with the OsmoPRO® MAX Automated Osmometer

Revolutionize workflow efficiency in your lab



2024년! 감상평 이벤트

여러분의 병리협보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병리협보가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의 감상평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4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 1) 접수기한 : 2024년 7월 22일(월) 18:00까지 전송
- 2) 접수방법 :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 3)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성명, 면허번호, 상품을 받으실 주소

[제497호 당첨자]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보건복지부와 간담회 실시

● 유수민(정회원)/면허번호 : 40444

금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개혁으로 급변하는 의료현장에서 임상병리사의 중요도와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협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의 끊임없이 교류하는 모습에서 임상병리사의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병무청,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실시

● 이두해(정회원)/면허번호 : 38935

이제 병무청에서도 마약검사를 실시한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마약 청정국이 이제는 아닌듯하네요. 병무청에서도 마약검사를 실시한다는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병원 및 의원급에서도 마약검사를 더욱 널리 검사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병리협보에 우리나라 여러 곳에 있는 다양한 병리사 직군의 소식을 알려주시면서 병원뿐만이 아닌 다른 여러 곳에서도 임상병리사들이 일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졸업하는 새내기 병리사에게 선택의 길을 넓혀주는 좋은 기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임상병리사의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회원동정



이유희(안산대학교 93학번)

승진 : 용인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진단검사의학팀장

발령일 : 7월 1일(월) | 발령자 : 이유희



FUND RAISING 협회 발전 기금 모금

존경하는 7만 8천 회원 여러분,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협회와 신축 협회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협회 발전 기금 모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회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048437-04-007038 (예금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입금명 : 면허번호+성명, 기관일 경우는 기관명으로 기재



Atellica® UAS 60 Analyzer

Powerful Imaging, Now in a Smaller Size

siemens-healthineers.com/urinalysis

중소형 검사실을 위한 요침사 이미지 분석 솔루션

- 작은 공간에서도 운영 가능한 요침사 자동화 분석 장비
- 검체 전체 이미지를 촬영 및 분석하는 알고리즘
- 원심분리 포함 시간당 최대 60개 검체 검사 가능
- 미량의 검체(약 175µL)로 검사 수행
 - 소아 및 노인 검체 검사에 최적화
- 편리한 검사 시약 및 소모품 관리
 - 전용 플라스틱 큐벳 외 검사 시약 및 소모품 없음



검사 과정



Specification

길이 × 높이 × 너비(mm)	315 × 325 × 305
무게	10 kg (22.05 lbs)
Throughput	최대 60 test/hr
검체 필요량	175 µL +/- 5 µL
결과 보고 단위	P/HPF, P/µL
인터페이스	2 × PS/2, 1 × DVI-D, 1 × RS232, 2 × Display port, 2 × Ethernet (RJ45) port, 2 × USB 3.0, 2 × USB 3.1, 4 × USB 2.0, 2 × Audio jack

Parameter

• RBC (red blood cell)	• YEA (Yeast)
• WBC (white blood cell)	• CRY (Crystals)
• WBCc (WBC Clumps)	• CaOxm
• HYA (Hyaline Casts)	• (Calcium-oxalate monohydrate)
• PAT (Pathological Casts)	• CaOxd
• EPI (Squamous Epithelial Cells)	• (Calcium-oxalate dihydrate)
• NEC (Non-squamous Epithelial Cells)	• URI (Uric acid)
• BAC (Bacteria)	• TRI (Triple phosphate)
• BACr (Bacteria Rods)	• MUC (Mucus)
• BACc (Bacteria Cocci)	• SPRM (Sperm)



0170004807

(재)씨젠의료재단 본원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Seegene Medical Foundation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부산경남검사센터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은 검사 품질의 완벽을 추구합니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의·석박사·임상병리사 등 임직원들이
최신 기술이 집약된 검사장비를 활용하여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요청한
임상진료 및 의학연구를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여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고,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검사센터



광주호남검사센터



대전충청검사센터



검사실 자동화(TLA) 시스템 운영



국내 최대 분자진단 검사 역량 보유



인공지능(AI) 등 최신퉴chnology 도입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서비스 제공

씨젠의료재단본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20
부산경남검사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대구경북검사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619
광주호남검사센터 |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200
대전충청검사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77

검사의뢰
학술문의

1566-6500

www.seegenemedical.com